

## 「古文化」의 增刊에 붙여

韓國大學博物館協會는 1961年 5月 5日에 結成을 본 후 몇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定期總會와 聯合展示會 및 그에 따른 學術發表會를 개최해왔다. 또한 協會가 結成된 이듬해인 1962년 5월부터는 協會의 機關誌인 「古文化」를 年刊으로 創刊하였으며 그 후로 今年 6月 總會時에 이르기까지 20輯을 발행하였다.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 발간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歷代 任員들의 노력에 힘입어 결과적으로는 거의 결함이 없이 매년 한번씩 펴낸 셈이 된다.

일년에 한번 總會와 聯合展示會를 개최하고 「古文化」를 한번 발행하는 일도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韓國大學博物館協會에 맡겨진 막중한 소명과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대학박물관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고 보다 앞찬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년부터는, 종래 일년에 한번만 열던 總會를 年 2회로 늘려 개최하되 春季總會 때에는 聯合展示會 중점을 두고 秋季總會 때에는 學術大會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今年 6月 嶺南大學校博物館에서 개최되었던 총회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이 결의에 따라 韓國大學博物館協會史上 처음으로 秋季總會 및 學術大會(「韓國大學博物館發展을 위한 協議會」)가 今年 11月에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 성황리에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古文化」의 발간도 年 1회에서 年 2회로 增刊키로 하고 每年 두번째의 것은 그해 가을에 개최된 學術會議의 結果를 실기로 하였다. 이러한 總會의 決議에 따라 이번에 역시 처음으로 今年度의 第 2 回分인 「古文化」 第21輯을 펴내게 되었다. 이 21輯은 물론 금년 가을에 「韓國大學博物館發展을 위한 協議會」라는 題下에 개최되었던 학술대회의 結果를 담은 것으로 일종의 學術報告書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올해부터 總會를 年 2회로 늘리고 「古文化」의 발간도 年 2회로 增刊하게 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조그마한 변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大學博物館協會의 將來와 결부시켜 본다면 결코 작지만은 않은 의미 깊은 도약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大學博物館協會의 기능과 역할이 좀더 활성화되고 우리 傳統文化의 研究와 教育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大學博物館協會를 아끼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작지만 의의가 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아 주시고 앞으로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편달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빈다.

1982年 12月

韓國大學博物館協會長 安 輝 濤